KPGA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 | 숨은 골프 실력 뽐낸 스포츠 전설들

‘비거리 특급’ 박찬호…‘퍼트 황태자’ 우지원

박찬호, 컨디션 난조에도 기본 300야드
우지원, 빠른 그린도 OK…퍼트감각 굿
김승현, 벙커샷 일품 ‘필드의 매직 핸드’
우승팀은 ‘20언더파’ 김태훈-여홍철 조

인천 서구 드림파크 컨트리클럽(파72·7102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은 기존처럼 ‘우승자’를 배출하는 정규대회이면서도 3~4라운드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과 유명인 골프 고수들이 팀을 이뤄 ‘우승팀’까지 가리는 특별한 무대다. 유명인들이 함께 하면서 숨은 실력을 공개해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호사가들은 유명인들의 숨은 골프 실력을 가장 궁금해 한다. 대회 최종라운드가 끝난 12일 만난 프로골퍼들은 동반 셀럽들, 특히 자신과 접점이 많은 스포츠 전설들의 진짜 실력을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비거리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퍼트는 ‘농구계 황태자’ 우지원, 벙커샷은 ‘매직 핸드’ 김승현이 최고였다.

2년 연속 박찬호와 함께 라운드를 한 김영웅은 코리안 특급의 여전한 비거리에 다시 한 번 혀를 내둘렀다. 박찬호는 지난해 이 대회 번외 이벤트로 열린 장타 대결에서 331야드라는 비범한 비거리로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다. 김영웅은 “사실 박찬호 선배님께서 이번 대회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지난해보다 스코어가 좋지는 못했다”면서도 “다만 비거리는 여전하시더라. 300야드 정도는 쉽게 보냈다”고 감탄했다. 다만 지난해 우승을 합작한 둘은 올해 11언더파 133타 공동 33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나란히 농구를 대표해 출전한 우지원과 김승현도 호평을 받았다. 우지원의 동반자였던 박정환은 “퍼트 감각이 참 좋았다. 사실 프로 대회 그린은 일반 코스보다 그린 스피드가 체감상 2배 가까이 빠르다. 그런데도 큰 실수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최종라운드 그린 스피드는 3.5m로 일반 주말골퍼들이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2.5m보다 1m 이상 빨랐다.

현역 시절 난이도 높은 패스 플레이로 사랑을 받았던 김승현은 필드 위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골프를 펼쳐보였다. 김승현과 호흡을 맞춘 현정협은 “김승현 선배님은 비거리가 그리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벙커샷과 같은 트러블샷이 일반 골퍼들보다 뛰어났다”고 칭찬했다.

한편 올해 대회에선 김태훈-여홍철(체조) 경희대 교수팀이 최종 스코어 20언더파 합계 12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날 11개의 버디를 기록한 뒤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10개와 18번 홀 보기 1개를 추가했다. 우승팀 상금은 1800만원이다. 아마추어가 우승상금을 가져갈 수 없어 우승상금과 맘스터치 이벤트홀에서 적립된 돈까지 합쳐서 우승팀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국민타자’ 이승엽은 김대현과 18언더파 공동 3위를 차지했고, ‘국보급 투수’ 선동열은 박성국과 17언더파 공동 6위를 기록해 스포츠 전설들로서의 체면을 지켰다.

인천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필드 위의 ‘전설들’ 스포츠스타 등 ‘골프광’ 셀럽들이 프로선수들 못지 않은 실력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뽐낸 하루였다. 1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12일 인천 드림파크CC에서 열린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에 출전해 퍼팅 라이를 살펴보고 있다. 2 ‘체조 레전드’ 여홍철이 드라이버 티샷을 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3 KBO 홍보대사 이승엽(왼쪽)과 신태용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4 선동열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아이언샷을 한 뒤 공을 응시하고 있다. 5 유상철 전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보기를 범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인천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80타 쳤다는 선동열…공식 기록은 며느리도 몰라

팀별 최고기록 적용 ‘베스트볼 방식’
박찬호 5·김상우 18 핸디캡 적용도

프로들과 함께 라운드를 펼친 유명인들의 스코어는 어떻게 산정될까.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은 특별한 방식을 도입했다. 유명인들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챔피언 티가 아닌 화이트 티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4라운드 때도 3, 6, 16번 홀을 제외하고는 15개 홀이 프로골퍼용과 유명인용 티가 달랐다. KPGA 관계자는 “두 티의 거리차이는 평균 20~30m 정도”라고 했다.

셀럽들의 스코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프로선수들과 한 팀으로 이뤄서 경기를 하는 동반자들이 가끔은 중간에 홀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KPGA 관계자는 “프로선수가 버디를 앞뒀는데 동반자 유명인이 OB를 냈다면 대부분이 빠른 플레이진행을 위해 플레이 중간에 공을 집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선동열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은 “3라운드에서 80타를 쳤다”고 했다. 사실 이 스코어는 공식기록이 아니다. 프로선수들은 매 라운드가 끝나면 스코어가 나오지만 셀럽들의 스코어는 비공식이라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베스트볼 방식(같은 팀 선수의 매 홀당 스코어 가운데 최고기록을 그 팀의 스코어로 정하는 것)을 적용하는 팀별 스코어는 공식기록이다. 여기에 유명인들은 핸디캡이라는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김상우 KBSN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의 경우 핸디캡이 18이었다. 이 경우 매 홀마다 한 타씩 핸디캡을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만일 핸디캡이 12라면 코스의 난이도 순서에 따라 1~12번 홀까지 핸디캡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유명인 가운데 최저 핸디캡은 탤런트 박광현의 2였다. 스포츠 스타는 야구 박찬호(5)~축구 신태용, 야구 마해영(이상 6)~배구 장윤창, 야구 선동열(이상 7)~체조 여홍철, 야구 김선우(이상 8)~야구 김재박(9)~축구 유상철(10)~펜싱 김영호(12)~야구 이승엽(13) 순이었다.

인천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나흘간의 열전…전가람으로 시작해 전가람으로 끝났다

생애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지키는 법 배웠다” 통산 2승째

캐디 출신 프로골퍼 전가람(24)이 감격적인 두 번째 우승을 거뒀다. 쟁쟁한 경쟁자들은 물론 스포츠와 연예계 셀러브리티들이 총출동한 단 하나의 무대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선물을 안았다.

전가람은 12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 컨트리클럽(파72·7104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총상금 6억 원·우승상금 1억2000만 원)에서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고 정상을 밟았다.

전가람은 지난해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두고 이름을 처음 알렸다. 무엇보다 자신이 캐디로 일했던 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생역전 드라마로 감동을 자아냈다.

프로골퍼로서의 삶을 고민하던 도중 첫 감격을 맛봤던 전가람은 그러나 두 번째 우승 달성이 쉽지만은 않았다. 정상을 앞에 두고 흔들렸기 때문이다.

전가람은 파5 2번 홀 보기로 1타를 잃은 뒤 전반 내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그 사이 김대현(31)이 전반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고 턱밑까지 쫓아왔다. 위기를 느낀 전가람은 10번 홀(파4) 버디와 11번 홀(파4) 보기, 12번 홀(파5) 버디로 1타를 줄여냈다.

결정적인 장면은 파5 16번 홀이었다. 앞조 김대현이 1m 버디 퍼트를 놓치는 장면을 지켜본 전가람은 투온 이후 투퍼트로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을 예약했다. 이어 2타 차이로 앞선 18번 홀(파4)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로 보기를 기록하고 정상을 밟았다.

전가람은 “첫 우승은 역전으로 달성했던 반면, 오늘은 지켜야하는 입장이었다. 부담감도 컸고, 압박도 받았다. 2번 홀에서 OB를 낸 뒤 그때부터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전가람답지 않았지만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하루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간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는 식으로 골프를 했다. 실제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았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법을 깨우쳤다”고 덧붙였다.

인천 | 고봉준 기자

프로골퍼 전가람이 12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4라운드까지 단 한번도 1위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인천 | 김진환 기자

김재박 전 LG 트윈스 감독이 12일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에 출전해 프로들과 동반 라운딩을 펼치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인천 | 김진환 기자

김재박 “간신히 버디 한 개” 치열했던 스타들의 프로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프로골퍼들과 스포츠 셀러브리티들이 함께한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이 12일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도 유쾌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였다.

대회의 긴장감을 실로 오랜만에 느낀 스포츠 스타들은 저마다의 떨렸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함께한 김영웅 프로가 자신의 샷을 하기도 바쁜데 끊임없이 나에게 와 ‘파이팅’을 넣어주고, 응원해주더라. 대회를 하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영원한 농구계 하이틴 스타 우지원은 “선수 출신들은 농구의 4쿼터 같이 승부처에서 골을 넣으면 그 긴장감을 즐길 줄 안다. 나도 그런 면에서 오늘 대회를 즐겼다”고 전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생소한 그린 여건은 모든 셀럽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다. 김재박 전 LG 트윈스 감독은 “그린이 상당히 빠르더라. 코스도 멀게 느껴졌다. 파를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간신히 버디를 한 개 기록했다”고 했다. 우지원도 “연습 때보다도 그린이 빠르더라.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용대는 “빠르긴 빠르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걸 말할 수준도 아니다”라고 고백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골프 자체를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해영 성남 블루팬더스 감독은 “팀 스코어는 좋았는데, 나는 별로 잘 못 쳤다. 연습은 많이 못했지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김재박 감독은 대회의 긴장감에 남다른 분위기도 느꼈다고도 했다. 김 감독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대회이다 보니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프로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